

野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감독 실패”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낙연·이재명 동시 겨냥
주호영, 특검 도입 촉구



윤석현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동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대책 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 대해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건 선부르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불품이 갔다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께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도 "채동욱 씨하고 만났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화살을 날렸다.

앞서 옵티머스 고문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이 지사를 면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채 전 총장도 이 지사 모두 당시 면담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사업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수사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통솔하는 검찰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방기하고 지연한 사정이 있는 마당에 검찰에 맡기자면서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민주당이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중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수십명을 좌초시키고, 정권 비리 의혹을 문개는 검사들은 꽃가마를 태우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한 것이 추미에 장관"이라고 꼬아붙였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질타

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됐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러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 원장에게 정지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우' 문건을 봤는지를 질의했다. 윤 원장은 "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 “안보팔이 말라” vs 야 “안보 위협 심각” 이낙연, 지역·세대 망라한 특보단 구상

한반도 종전선언 놓고 공방

여야는 13일 여권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을 꺾어내려는 야당을 '냉전 수구세력'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의 신행 전략무기로 안보 위협이 증대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종전선언 방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대책회의에서 "김종민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고 극언했다"며 "과거 남북간장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북풍 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이라고 꼬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분단에서 좁은 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세력임을 또 자인한 꼴"이라면서 "네오콘과 아베 정부의 방해와 반대만 없었다면,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일언반구의 말씀이나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기반 확대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특별보좌진(특보단) 구성에 나선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인 동시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특보단이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 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특보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13일 "지역, 세대, 직능별로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특보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손발' 역할을 할 현장 특보들도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단은 이르면 이번 주 인적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임명장 수여식 등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원내에서는 우선 8:29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함께해온 전혜숙 김철민 의원 등이 특보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국방·외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영남의 경우 원의 지역위원장인 상당수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농수산, 서비스업, 노동, 보건 의료 등 직능별 대표성이나 청년, 여성 등 세대 대표성을 띤 인사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특보단은 일단 20여명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책 철학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도연학원 이사장, 국감 앞 증인 필수 사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13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은 임기를 20개월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흘만인 지난날 25일 해당 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땀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 기술이전 수술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기술 실용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1.2%, 1억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국유특허 개발에서부터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3일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면서 "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원 미만인

이개호 “지난해 밀 자급률 0.7%…국산 품종개발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밀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우리 밀에 대한 적극적 품종 및 가공식품 연구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0.7%로 계속 뒷걸음치고 있어 22년까지 9.9%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내 밀 산업의 발전과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을 통해 우리 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밀관련 가공식품을 연구하여 우리 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식량자급률, 잘못된 사업설계로 총체적 부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이 잘못된 사업설계로 무리한 수출목표 설정과 실적 부진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실성 없는 무리한 수출목표를 세웠다. 2018년 3868만 달러였던 수출목표는 2021년에는 1억 9970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3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217억원인 반면 수출실적은 1657억 4145만원(1억4412달러)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사업설계로 현

서삼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농진청과 농기평의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성과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콘도 회원권 급 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 매각합니다

|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 | | | | | | | | |
|-----------------------|---|-----------------|--------|-------|---------|--|--------------|--------|-------|
| 콘도명 | 사용체인 | 면적 | 최종 분양가 | 매각 금액 | 콘도명 | 사용체인 | 면적 | 최종 분양가 | 매각 금액 |
| 한화 리조트 |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가재 | 디럭스형 방 2개 (기명) | 2,480 | 1,680 | 켄싱턴 리조트 |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충주둔산,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 패밀리B (21) 방1 | 1,980 | 980 |
| | | 디럭스형 방 2개 (무기명) | 3,110 | 1,880 | | | 스위트A (26) 방2 | 2,120 | 1,280 |
| 대명 리조트 |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가재, 변산, 예수, 진도 | 패밀리형 방 1개 | 2,530 | 1,780 | 금호 리조트 | 설악, 제주, 통영, 화순 (충무마리나) (춘천, 경주, 양산, 해운대) | 패밀리형 방 1개 | 1,890 | 850 |
| | | 스위트형 방 2개 | 3,600 | 2,680 | | | 스위트형 방 2개 | 2,700 | 1,550 |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